특별선교주일

설교 자료



연합감리교구호주일

“위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설교 자료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을 위한 연합감리교구호주일 자료의 일부이며, “위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제로 작성되었습니다. 각 교회와 예배의 상황에 맞게 본 자료를 수정하여 자료 꾸러미에 담긴 다른 자료와 함께 사용하세요. 본 설교 자료는 **2025년 3월 30일의 성서일과표 본문인 여호수아 5:10-12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성경 본문: 여호수아 5:10-12

“10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 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많은 이들이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인위적 재난의 여파로 가옥이 파괴되고, 삶이 혼란을 겪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등의 상상할 수 없는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우리는 종종 봉사하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취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빛을 비추는 단체 중 하나가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UMCOR)입니다. 즉각적 구호 활동, 장기적 회복 사업, 지속적 지원을 위한 구호위원회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서로를 향한 우리의 공동 책임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례의 새로운 장, 즉 약속과 희망의 장이자 전환의 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섰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에 의존하지 않고 그 땅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는 재난 이후의 복구 사업을 통해서도 같은 이치를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적적 개입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과 공동체의 재건을 돕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5:10-12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 과정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합니다. 40년의 광야 유랑 기간 동안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와 돌보심을 상기시키는 기적적인 공급이었습니다.

특별선교주일

설교 자료



연합감리교구호주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새로운 계절로 부르십니다. 땅의 열매를 수확할 것이기 때문에 만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성취와 전환의 순간입니다. 기적에 대한 직접적 의존에서 새로운 일상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복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난을 겪은 많은 지역사회는 복구 초기에 음식, 물, 쉼터, 정서적 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및 지역 교회 같은 단체의 관대함과 즉각적 지원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만나" 즉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을 통해 베푸시는 즉각적 구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지역사회가 재건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집과 학교, 삶을 재건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의 손길을 통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한 의존을 뒤로하고 가나안의 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단순 생존에서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구호위원회는 2024년 가을 허리케인 헬렌을 비롯해 전 세계 여러 위기 상황에서 폭풍으로 폐허가 된 지역사회에 이러한 "만나"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절망의 장소에 희망을, 상처 입은 곳에 치유를 제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길과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적 공동체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정서적, 영적 지원을 제공하셨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폭풍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풍요로운 땅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방랑의 세월은 끝나고, 그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구호위원회의 사역은 지역사회가 회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풍 이후에 새로운 시작과 회복, 갱신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복구 과정은 물품이나 재정적 지원의 도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구호위원회의 헌신과 지역 교회 및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구호위원회를 통해 굶주린 자를 먹이고, 노숙자를 보호하며, 상처 입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순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앉아서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부, 자원봉사, 기도 등을 통해 구호위원회의 노력을 도울 때, 우리는 상처받은 세상에 치유와 정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재난의 여파와 복구 과정에서 구호위원회의 역할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계속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위기의 계절에서 회복과 희망의 계절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기꺼이 내미는 손길로 응답합시다.

영향력을 위한 연합: 우리의 관대함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위한 희망, 구호, 그리고 지속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